

#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행태에 관한 연구

김 종 권 \*

## 1. 서 론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대내외 경제환경에서 한국은 수출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수출규모가 2002년까지 1,624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기업 규모별 수출행태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한국의 수출은 1980년대 말까지 주로 종합무역상사 등을 위시한 대기업 위주의 수출에서 1990~2000년대 들어 중소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40% 선까지 높아져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수출행태에 관한 연구와 이를 대기업 수출행태와 비교하는 연구는 의미있는 연구로 생각된다.<sup>1)</sup>

한편, 우리나라의 수출은 대내외적 요인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는데, 그동안 높은 수출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등의 해외경기가 호황을 보이는 경우 증가하고 침체를 보이는 경우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라, 원/달러환율의 상승은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주어 수출증가로 이어졌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수출제품 구조가 1980년대 중반이후 들어 일본과 어느 정도 유사해지면서 한국의 수출이 엔/달러환율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엔화가 절하되는 경우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이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이와 같은 우리나라 수출행태함수를 추정함에 있어서 엔-달러환율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윤재(1999)는 처음으로 기업규모별 수출행태를 분석한 논문으로 수출금액함수를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로 엔-달러환율의 대용변수로 원/엔환율을 추가한 후 Johansen 공적분검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달러환율에 대한 수출금액 탄력성이 대기업이 큰 반면에 원/엔환율에 대한 수출금액의 탄력성은 중소기업이 더 크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재열·한희준(2001)은 수출단가와 수출물량 및 수출금액함수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ARIMA를 통하여 품목별로 추정하였다. 이들은 엔/달러환율을 수출단가 및 수출 금액함수의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엔달러환율이 10% 상승할 때 반도체 등의 품목이 수출 가격 하락폭이 커서 수출 금액을 감소시킨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이우성(2001)은 물량기준 수출모형을 설정함에 있어서 독립변수로 엔/달러환율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자기시차분포모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 신홍대학 경상정보계열 전임강사

1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년 평균 수출비중은 1980년대 약 30%에서 1990~2000년대 들어 40%선까지 증가한 반면 대기업의 년 평균 수출비중은 1980년대 약 70%에서 1990~2000년대 들어 60%선으로 하락하였음

강상모·오영균(2001)은 수출단가 및 수출물량함수에 엔/달러환율을 독립변수로 취급하여 오차수정모형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이와 같이 엔/달러환율이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수출의 변동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엔/달러환율의 움직임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상호·강경석(2003)은 외환위기 이후기간인 1998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를 표본기간으로 설정하여 중소기업을 위주로 하여 엔-달러환율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 수출행태를 비교함으로써 기업규모별 수출진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논문에서 추정된 엔/달러환율의 수출금액 탄력성은 부(-)의 값을 갖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탄력성이 대기업의 탄력성보다 약간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은 1차산품 및 경공업제품의 비중이 여전히 높으며, 엔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아시아 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하여 엔/달러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기업규모별 수출현황

우리나라 전체 기업규모별 수출추이 및 비중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은 1990년 불과 650억 달러였던 것이 2002년에는 약 1,624억 달러로 2배 이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기업규모별 수출추이 및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9%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중소기업의 수출다각화와 자구노력 등으로 약 4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대기업의 수출은 연 평균 8%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규모별·년도별 수출추이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대기업과 비교하여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고,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수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의 국가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비중이 높지만, 중국·홍콩·대만·인도네시아·싱가폴·베트남·필리핀 등 동아시아의 비중도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우리나라가 1990년대에 빈번하게 나타난 주요 선진국과의 통상마찰로 인하여 수출다변화 정책을 시행한 점에 힘입은 바가 크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등 동아시아 경제권의 안정적 성장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 중소기업의 국가별 수출추이의 특징으로는 중소기업의 지역별 수출에서 일본을 제외한 주로 엔화의 영향을 받는 신흥 수출 대상국에로의 수출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 표 1. 기업규모별·년도별 수출추이 및 비중 >

(단위: 백만 달러, %)

년 도	총수출액	중소기업 수출액	대기업 수출액	중소기업 수출비중	대기업 수출비중
1990	65,015.7	27,382.0	37,545.8	42.1	57.7
1992	76,631.5	30,675.9	45,873.4	40.0	59.9
1994	96,013.2	40,701.3	55,156.0	42.3	57.4
1996	129,715.1	54,205.4	75,320.9	41.7	58.1
1998	132,313.1	41,033.5	91,092.8	31.0	68.8
2000	172,267.5	63,509.3	108,627.3	36.8	63.1
2001	150,439.1	64,600.3	85,738.0	42.9	57.0
2002	162,470.5	68,307.8	94,052.8	42.0	57.9
2003.5	73,533.4	30,586.1	42,908.4	41.6	58.4

주 : 1. 수출액은 면장상 화주기준임

2. 수출실적 중 중소기업과 대기업 부분은 '99년부터 집계방법을 변경하여 작성한 수치이므로 그 이전의 실적과는 비교할 수 없음

3. 2003년은 1~5월 누계임.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수출통계』

< 표 2. 국가별 수출실적 추이 >

(단위:천달러)

순 위	국 가 별	중소기업			총 수 출		
		2001	2002	증감률	2001	2002	증감률
1	중국	8,709,892	12,999,247	49.2	18,912,809	24,801,215	31.1
2	미국	11,515,706	12,469,570	8.3	32,248,401	33,859,357	5.0
3	일본	7,534,985	7,309,306	△3.0	17,259,764	15,782,079	△8.6
4	홍콩	4,542,808	4,782,640	5.3	9,878,096	10,693,748	8.3
5	대만	1,894,867	1,911,489	0.9	6,036,750	6,862,264	13.7
6	인도네시아	1,626,750	1,723,471	5.9	3,393,341	3,245,210	△4.4
7	싱가폴	1,859,920	1,720,671	△7.5	4,181,166	4,307,387	3.0
8	베트남	1,174,356	1,508,199	28.4	1,792,077	2,292,067	27.9
9	필리핀	1,228,449	1,417,531	15.4	2,601,332	3,063,138	17.8
10	독일	1,772,646	1,275,442	△28.0	4,549,760	4,513,827	△0.8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수출통계』

다음으로 최근의 한국의 품목별 수출액 실적추이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은 주로 전자 및 전기제품(반도체·무선통신기기·컴퓨터 등)과 섬유제품(의류·편직물·인조장섬유직물 등) 등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까지 중소기업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생활용품이 경제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차츰 그 구성비가 하락한 반면, 전기전자 및 섬유제품, 플라스틱제품, 자동차부품 등의 구성비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중소기업 수출은 과거 50% 이상을 차지한 1차산품 및 경공업제품의 구성

비가 하락하고, 2001년 현재 중공업제품의 구성비가 65% 넘음으로써 수출품목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공업제품 수출 구성비는 아직도 대기업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격경쟁력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한국의 중소기업의 수출품목이 중공업제품 위주로 탈바꿈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공업제품 수출 구성비는 아직도 대기업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격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표 3. 품목별 수출실적 추이 >

(단위 : 천달러, %)

순 위	품 목 별	중소기업			총 수출		
		2001	2002	증감률	2001	2002	증감률
1	반도체	5,942,342	5,911,977	△0.5	14,372,156	16,772,448	16.7
2	무선통신기기	3,308,077	5,733,475	73.3	10,904,727	14,995,045	37.5
3	컴퓨터	2,040,998	3,485,382	70.8	11,670,668	13,294,988	13.9
4	의류	3,548,268	3,412,699	△3.8	3,942,216	3,656,359	△7.3
5	편직물	2,277,101	2,476,855	8.8	2,491,924	2,717,518	9.1
6	인조섬유직물	2,465,277	2,325,383	△5.7	2,926,528	2,604,974	△11.0
7	합성수지	1,691,954	2,130,013	25.9	4,584,411	4,991,468	8.9
8	플라스틱제품	1,599,107	1,814,844	13.5	2,159,287	2,409,055	11.6
9	기타직물	1,889,223	1,802,297	△4.6	2,276,402	2,159,029	△5.2
10	자동차부품	1,612,255	1,662,979	3.1	2,325,064	2,854,836	22.8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수출통계』

### 3.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 전체 기업규모별 수출추이 및 비중 추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은 1990년 불과 650억 달러였던 것이 2002년에는 약 1,624억 달러로 2배 이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기업규모별 수출추이 및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9%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중소기업의 수출다각화와 자구노력 등으로 약 4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대기업의 수출은 년 평균 8%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규모별·년도별 수출추이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대기업과 비교하여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고,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수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의 국가별 수출실적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비중이 높지만, 중국·홍콩·대만·인도네시아·싱가폴·베트남·필리핀 등 동아시아의 비중도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우리나라가 1990년대에 빈번하게 나타난 주요 선진국과의 통상마찰로 인하여

수출다변화 정책을 시행한 점에 힘입은 바가 크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등 동아시아 경제권의 안정적 성장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 중소기업의 국가별 수출추이의 특징으로는 중소기업의 지역별 수출에서 일본을 제외한 주로 엔화의 영향을 받는 신흥 수출 대상국에로의 수출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최근의 한국의 품목별 수출액 실적추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은 주로 전자 및 전기제품(반도체·무선통신기기·컴퓨터 등)과 섬유제품(의류·편직물·인조장섬유직물 등) 등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까지 중소기업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생활용품이 경제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차츰 그 구성비가 하락한 반면, 전기전자 및 섬유제품, 플라스틱제품, 자동차부품 등의 구성비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중소기업 수출은 과거 50% 이상을 차지한 1차산품 및 경공업제품의 구성비가 하락하고, 2001년 현재 중공업제품의 구성비가 65% 넘음으로써 수출품목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공업제품 수출 구성비는 아직도 대기업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격경쟁력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한국의 중소기업의 수출품목이 중공업제품 위주로 탈바꿈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공업제품 수출 구성비는 아직도 대기업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격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 4. 참 고 문 헌

- [1] 강삼모·오영균(2001), “환율변동의 전가효과 - 환율변동이 수출 및 수입가격과 물량에 미치는 효과분석,” 『연구보고서』, 제24권, LG경제연구원.
- [2] 이우성(2001), “미·일 경기둔화의 품목별 수출영향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제 CI.01-05호, LG경제연구원.
- [3] 이상호·강경석(2003), “엔-달러환율 변동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행태분석,” 『국제경제연구』, 제9권 제2호, 국제경제학회, 49-70.
- [4]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수출통계』
- [5] Klitgaard, T.(1999), “Exchange Rate and Profit Margins: The Case of Japanese Exports,” *Economic Policy Review*, June, 473-486.